



저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밑그림

도내 업체 사용료 50% 감면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상주 인력 최소 3명 배치 계획
“체류 증가로 경제 유발 효과”
개관 앞두고 명칭 공모 진행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문을 여는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조감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5월 개관 예정인 가칭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의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저지리 2114-37번지 외 3필지(대지면적 2만1744㎡)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상 2층 건물이다. 영상촬영 유치와 영상제작 지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실내 A·B 스튜디오 2개, 야외촬영장 2개, 편집실, 분장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 영상·영화 관

련 업체나 개인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면 30% 감면,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의 15%를 각각 감면해줄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실내영상

스튜디오와 유사하게 가동되는 시설은 부산시의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전주시의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약 10곳에 이른다. 이들 시설은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등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는 제주도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 별도 운영팀 신설 없이 상주 인력을 증원에 가동하기로 했다. 개관을 앞두고 현재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존 인력 1명, 시설운영 인력 1명 등 2명

이 근무 중이고, 6월 통합 채용을 통해 1명을 더 배치할 예정이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측은 “실내 영상스튜디오가 문을 열면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고 제주 현지 야외 로케이션과 실내스튜디오 촬영을 병행해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체류 증가에 따른 소비에 확대 등 지역 경제 유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이 활성화되면 촬영·조명 등 제주 영상·영화 관련 업체의 참여도 늘고 역량 강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개관을 앞두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전을 열고 있다. 제주 문화와 지역성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제주4·3을 다룬 '황우력' 시사만화 일부.

'황우력' 시사만화에 담긴 제주4·3

양명운 화백 만평 등 모아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전시
친숙한 장르에 그날의 의미

1만600회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이뤄진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환영하며 기획됐다. '황우력' 시사만화, 만평 중에서 4·3 관련 작품을 모아 제작된 총 50점의 액자를 펼쳐놓는다. 액자 1점당 수편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황우력' 시사만화가 4·3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음을 드러낸다. 특히 시사만화의 성격상 4·3진상규명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일간지 시사만화와 만평으로 제주4·3의 의미를 나누는 전시가 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운영법인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마련한 '황우력의 4·3이야기'다.

'황우력'은 시사만화가 고(故) 양명운 화백이 탄생시킨 캐릭터다. 고인은 1968년 옛 제주신문 화백 겸 기자로 입사해 같은 해 5월 10일 시사만화 '황우력'을 처음 선보였다. 2009년부터는 한라일보로 자리를 옮겨 '황우력'과 '한라만평'을 그렸고 2012년 11월 30일엔 모두 합쳐 1만 회 연재 기록을 세웠다. 그의 시사만화는 2015년 4월 별세 직전까지 총

이들 전시물은 4·3 72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3월 북촌 너른송이기념관에서 시작됐던 '황우력 시사만화로 읽는 제주4·3' 전시를 바탕으로 했다. 당시 행사를 준비한 황우력만화친목회 사회적협동조합은 “황우력 시사만화 전시가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745-7108. 전선희기자

디지털 미술 시장 제주 경쟁력 모색

제주 이영재 미술평론가
NFT 기반한 갤러리 오픈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블록체인 개념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예술작품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술이다. 그동안 디지털 개념의 미술은 컴퓨터 파일을 이용해 쉽게 똑같은 작품을 재생산하는 방식이었다. NFT는 토큰 하나에 각각의 자산을 연결하는 것으로

온라인상 미술작품도 원본의 고유성을 인정받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NFT 미술시장은 초기 단계이긴 하나 최근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Beeple)의 디지털아트가 6934만 달러에 낙찰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이영재 평론가는 이 점에 착안해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작품은 각종 국제,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이 들지 않고 구매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서 사용할 수 있다”며 “물류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제주도에서 디지털 상품의 개발은 다른 지역과 동등한 입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중앙대 회화과, 서울대 학원 미학과를 졸업했고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미술평론가로 등단했다.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 제주 등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쏠리

'2020 박물관 연보' 발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2020 박물관 연보'를 펴냈다.

이번 연보는 지난해 기준 박물관 현황을 망라했다. 관람객 현황을 시작으로 자료 수집과 보존처리, 특별전 등 전시, 교육과 행사, 학술총서 발간, 전시와 시설 개편, 일반 현황 등을 개재했다. 2020년은 특히 코로나19로 관람객이 2019년 38만7084명에서 6만228명으로 84.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속자료의 제주들 문화공원 이관 등에 따른 전시콘텐츠 강화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도 소개했다.

제주메세나 소식지 창간

제주메세나협회가 '제주형 메세나 운동'의 메시지를 꿈꾸며 소식지를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는 김대형 제주메세나협회 회장의 발간 인터뷰를 시작으로 메세나의 정의와 필요성, 메세나 활동 현황, 메세나법 등 메세나에 대해 다뤘고 제주메세나협회 연혁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동네오케스트라'인 화북오케스트라의 성장기와 벅스트이지, 제주사랑렌트카, 한국중부발전제주본부 등 후원사의 '아름다운 동행'도 만날 수 있다. 시선 집중 제주메세나, 제주메세나 동행의 밤 등도 수록했다.

59회 탐라문화제 백서 제작

제주도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제주예총)가 주최하고 제59회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59회 탐라문화제 백서가 나왔다.

백서는 지난해 10월 7-11일 온·오프라인으로 치러진 탐라문화제의 성과와 과제를 담았다. 사진으로 보는 탐라문화제, 기본계획 개요, 프로그램 세부 내용, 축제의 준비 운영, 평가 등을 실었다.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은 “코로나19 시대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술인들의 힘든 시간을 넘어설 돌파구를 모색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순자 네 번째 자전 에세이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어 쓰기 시작한 게 벌써 네 번째다. 서귀포 토평공업단지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한순자씨가 40여 편의 글을 모아 자전적 에세이 '익숙한 바람맞이' (열린문화) 4권을 냈다.

칠순이 넘은 한씨는 남들처럼 수필가로 등단하진 않았지만 10여 년 수필 강좌를 들으며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 살며 겪은 온갖 사연을 일일이 손으로 적은 것이 '익숙한 바람맞이'다. 그는 더러 서투르도 솔직한 일상을 나누며 생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했다.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에 대하여

좌혜선 다섯 번째 개인전
이달 30일까지 새탕라움

먹고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가 있다. 제주시 아트스페이스 새탕라움에서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좌혜선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 '세 개의 방'이다.

좌혜선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 부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살림을 위해 이다지도 몸부림 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그랬었기에 아

무도 이유를 궁급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이것을 그렇게 만든 모든 시작이 알고 싶었다.” 그는 장지에 분체를 여러 겹 덧칠하고 다시 뒤야내는 방식으로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견뎌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표현했다.

좌 작가는 제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탕라움 웹사이트(www.instagram.com/seetangra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인함으로써 실천하여 소상공민 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지역지원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

세외카페
유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